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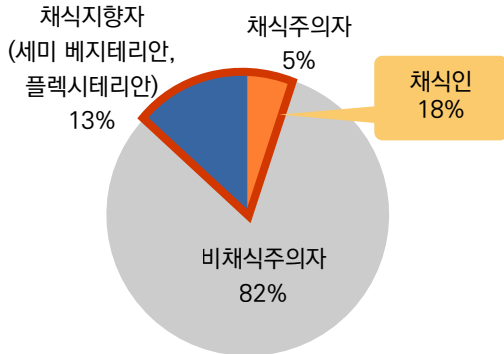


[채식주의 관련 인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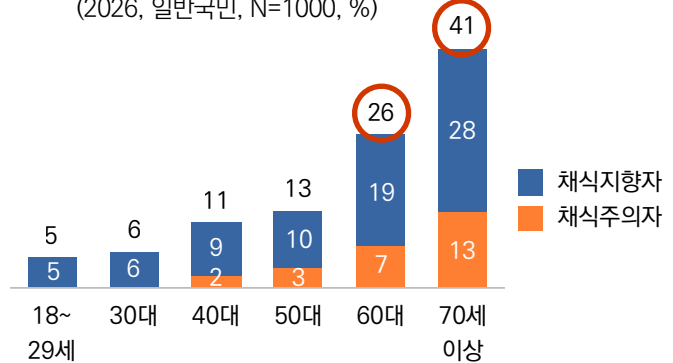
국민 5명 중 1명(18%)은 '채식인'!

- 우리나라 국민 중 채식을 실천하거나 지향하는 채식주의자는 얼마나 될까? 자신을 채식주의자(5%) 또는 채식 지향자(13%)라고 답한 채식주의 비율은 18%(5명 중 1명꼴)였다.
-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(5%)나 30대(6%) 등 젊은 세대보다 60대(26%)와 70세 이상(41%) 고연령층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, 건강과 식습관 관리에 민감한 고령층일수록 채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[그림] 채식 실천/지향 여부 (2026, 일반국민, N=1000)



[그림] 연령별 채식주의자(채식주의자+채식지향자) 비율 (2026, 일반국민, N=10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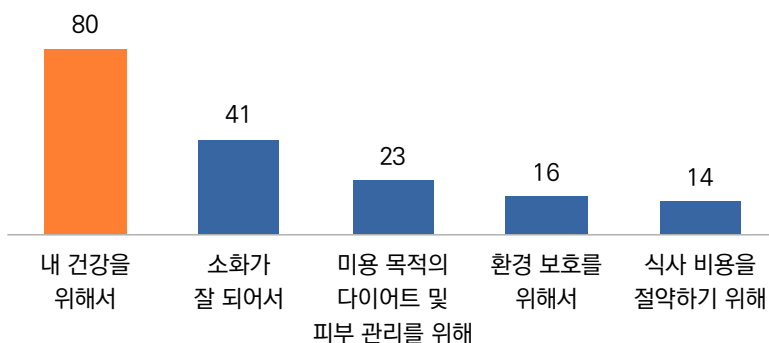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년 채식-비거니즘 인식조사] 채식주의자의 식습관, 채식-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, 2026.10.07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7.24.~07.29.)

채식하는 이유 1위는 단연 '건강'(80%)!

-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실천하거나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'내 건강을 위해서'라는 응답이 80%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.
- 이어 '소화가 잘 되어서'(41%), '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및 피부 관리를 위해'(23%) 순으로 나타나, 신념이나 환경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몸 상태 개선과 건강 관리가 채식의 가장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.

[그림] 채식을 하는 이유 (2026, 채식주의 혹은 채식 지향하는 자, N=176, 중복응답, 상위 5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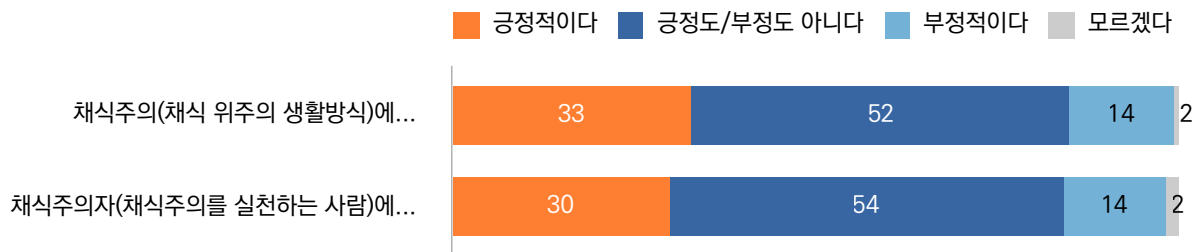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년 채식-비거니즘 인식조사] 채식주의자의 식습관, 채식-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, 2026.10.07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7.24.~07.29.)

채식/채식주의자에 대한 ‘긍정적’ 인식, 부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아!

- 채식주의(채식 위주의 생활방식)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‘긍정적이다’라는 응답이 33%로 ‘부정적이다’(14%)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, 절반 이상(52%)은 ‘긍정도 부정도 아니다’라고 응답했다.
- 채식주의자(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)에 대해서도 ‘긍정적이다’가 30%로 ‘부정적이다’(14%)를 앞섰고, ‘보통(긍정도 부정도 아니다)’이 54%로 가장 많았다.
- 이는 우리 사회에서 채식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수용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채식/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 (2026, 일반국민, N=1000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년 채식·비거니즘 인식조사] 채식주의자의 식습관, 채식·채식주의자에 관한 인식, 2026.10.07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7.24.~07.29.)